

나주 정착 시리아 난민가족 '보은의 식사'

폭탄에 아들 잃고 다리 다친 오마르 가족 지난해 10월 정착 지역단체 생계비·치료비 등 지원...오늘 식사로 감사 인사

“전쟁으로 가족을 잃는 비극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시리아에서 한국의 나주로 이주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준 분들께 감사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27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남동 마이홀 2관 이매진 4층에서 아주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내전(內戰)으로 가족을 잃고 지난해 한국으로 거처를 옮긴 시리아 난민(인도적 체류허가자) 가족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지역사회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다.

이날 파티에서 요리사 출신 오마르씨와 가족들은 직접 만든 쿠키와 빵 등 시리아 음식을 참석자들에게 대접하고,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오마르씨 가족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 의논한다. 11월에는 오마르씨 가족이 겪은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 전시회 또는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시리아 알레포시(市)에 살던 오마르씨네는 내전 4년째이던 지난 2014년 폭탄 테러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오마르씨 자신은 폭탄 파편에 맞아 신경이 손상되면서 한쪽 다리를 거의 쓸 수 없게 됐다.

그의 가족은 지난 2011년 시작된 내전을 피해, 가족을 잃는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성년에 달한 큰아들(17)과 둘째(13), 넷째(12), 다섯째(9)까지 7명의 가족은 “나주에 먼저 간 친척이 있다. 입국하면 생명은 이어갈 수 있다”는 각오였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나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큰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

던 가족은 올 여름 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오마르씨는 다리를 치료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아내는 임신중독증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가족엔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마르씨 가족의 경우 지난 7월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한국인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 ‘난민’과는 달리 취업활동 제한하지 않을 뿐 의료지원 등 지원책이 충분치 않아 가족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희망은 아주 가까운 데서 날아들었다. 가족의 사연을 우연하게 접한 ‘아시아 평화화 위한 이주’라는 단체가 나주 지역사회에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긴급생계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단체는 나주시,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나주다문화센터, 영강초등학교와 협업체를 꾸려 일주일에 한 차례씩 가족 한글교육을 도왔고 영산포복지관은 위기 가정으로 판단,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넷째가 다니던 학교에선 바자를 열어 40만원의 현금을 지원했고, 광주 수완병원은 오마르씨 다

리를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의 큰 고민이었던 병원비는 지역사회 뜻있는 온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조속으로 지난 8월 세상에 태어난 막내 치료비 900만원은 전남대병원 직원 모임인 ‘학마을 봉사회’와 광주출입국관리소가 해결해줬고, 산모 나드라씨 치료비 500만원은 전남대에서 지원했다.

아시아평화를 위한 이주 대표 김영아(여·36)씨는 “오마르 가족은 지난 7월 인도적 체류사 허가를 받고 가족의 치료비가 해결돼 숨들릴만한 상황이 되자 첫 행사로 감사 파티를 준비했다”면서 “지역사회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오마르 가족처럼 인도적체류자들이 제대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평화를 위한 이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난민신청자는 576명, 인도적체류자는 927명이다. 5442명에 대해서는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4 해질 18:22 달출몰 02:36 달몰 16:18

우산 챙기세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강우량 6~10mm.

◇지역별 날씨(℃)

광주	22/29	보성	흐림	20/29	
목포	흐림	22/28	순천	흐림	21/36
여수	흐림	22/28	영광	흐림	21/29
나주	차차흐려져	21/30	진도	흐림	22/28
완도	흐림	22/28	전주	흐림	22/28
구례	차차흐려져	20/30	군산	흐림	21/26
강진	흐림	21/30	남원	흐림	20/28
해남	흐림	21/30	축산도	흐림	20/25
장성	차차흐려져	20/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풍	0.5~1.0	북풍	0.5~1.0
남부	남풍	1.0~2.0	북풍	1.0~2.0
남해	남풍	0.5~1.5	북풍	0.5~1.5
서부	남풍	1.5~2.5	북풍	1.5~2.5
남부	남풍	1.5~2.5	북풍	1.5~2.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34	04:54
	00:00	17:00
여수	06:53	00:51
	19:15	12:56

◇주간 날씨

28(수)	29(목)	30(금)	10/1(토)	2(일)	3(월)	4(화)
☁	☀	☁	☁	☀	☀	☀
22/26	20/25	17/23	17/24	16/25	17/25	15/25

전남대병원 노조도 내일 총파업 동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파업이 잇따르면서 전남대병원 노조도 오는 28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6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부터 성과연봉제 저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위한 파업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조정 만료일인 27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전야제를 거쳐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훈병원지부 광주지회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지부 조합원들도 오는 28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노조는 “병원 성과연봉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며 “진료, 검사, 업무 지원 등 70여개의 직종과 진료과의 협업체를 파괴하고 부서별 경쟁, 이기주의를 유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진료·저질 진료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상업화·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



“독감 예방 접종 하세요” 26일 광주 북구보건소(소장 김은숙) 직원들이 접종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접종 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북구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동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재난구조용 국가지점번호 설치율 ‘꼴찌’

재난구조용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이 수도권 최대 18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안전사고 발생시 제때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의당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점번호 검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설치율 편차가 최대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지점번호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제주도로 설치예상량 대비 실제 설치율 13.2%였다. 반면 전남은 0.7%로 가장 낮아 제주와 편차가 18배에 달했다. 제주에 이어 광주가 11.4%로 두번째로 높았고 이어 서울 10.3% 순이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들·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 즉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국도의 통일된 위치안내 표시방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륜 필요한 학교 경찰 72% 20·30대 빠른 대응 필요한 파출소 67%가 40·50대

광주경찰청 개선 필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에는 젊은 경찰이,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지구대·파출소에는 중년 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지역 학교전담경찰관 72%가 20·30대였고, 파출소·지구대 근무 지역경찰관 66.8%는 40·50대 중년이었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근무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1050명 중 65%인 680명이 20·30대 경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의 30대 이하 비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피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져 파문을 일으킨 부산이 80%에 달했고 대구(80%), 제주(77%), 경기남부(73%), 인천·광주(72%)가 뒤를 이었다. 전남은 54%였고, 전북은 3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발 빠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지구대·파출소의 30대 이하 젊은 경찰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는 30대 이하 지역경찰관 비율이 33%로 6대 도시 중 가장 낮은 것

로 나타났다. 대신 40·50대는 66.8%였다. 지역경찰관 3명 중 2명은 중년인 셈이다.

농촌과 섬이 많은 전남은 젊은 지역경찰 비율이 29%로 더 낮았다. 40·50대 지역경찰은 70.7%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전북지역은 30대 이하 지역경찰이 18%에 불과했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하려면 상담과 조사 분야의 경험과 연륜이 필요함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에 치중하느라 젊은 경찰관 위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학교폭력 업무 수행을 위한 연간 예산 22억원 중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홍보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 정착 피해자 구제 활동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연륜 있는 중장년의 경찰을 배치해야 할 학교에 젊은 경찰을 배치하고 기만하게 대응해야 하는 지역경찰관에서는 고령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직무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인력운용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앙동, 광천사거리, 광주전면로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